

# 十二地支의 原理로 바라본 사상의학에 대한 연구

김광호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Study of Interactions of Twelve Elements of the Earth in the Principle of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uang Ho Kim, Jung Soo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Dongmugong(東武公) advanced seven-feeling theory of Dangua(丹溪) and spirit-action theory of Buddhism.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as big three ideological base; phylosophy of the human nature, natural laws and the doctrines of Wangyangming(王陽明). In Dongy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it is insisted that one's nature(性) and feelings(情) influenced to change his or her external form and the function of the internal organs. According to Dongyuisusebowon, the metabolism of human body is influenced by the actions of the nature(性) and the feelings(情). Also, sometimes, people get sick because of the disharmony of them. Of course, the concept of the nature(性) and the feelings(情) is different from a general idea. In Dongyuisusebowon, the nature(性) is made up of the intelligence(智), the courtesy(禮), the integrity(義), and the affection(仁). It is same with the feelings(情). The feelings(情),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composed of grief(哀), anger(怒), pleasure(喜), and enjoyment(樂). Dongmugong explained those in his writings and we got to know that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uld be explained by the interactions of twelve elements of the earth(十二地支). Symptoms and signs in his books can be explained by the same mechanism in Sanghanion(傷寒論), but these of each constitution could be seen different one because of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Sasangin(四象人)

Key words : Twelve Elements of the Earth(十二地支),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Dongmugong(東武公)

### 서론

道家的 無爲自然사상을 바탕으로 한 黃老思想 중 의학에 관련된 분야는 『黃帝內經』의 이론으로 전개되었다. 張仲景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통하여 발전시켰고,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체계화하여 無에서 有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서술하였다. 金元四大家는 儒家的 太極論에 뿌리를 둔 有機體論에 입각하여 이론을 펼쳤고, 이를 바탕으로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有에서 無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체계화하였다. 朱丹溪가 佛教의 心因論을 바탕으로 한 七情論으로 의학을 전개한 것을<sup>1)</sup>, 東武公은 中庸과 大學을 바탕으로 孟子的 天命思想, 性理學, 陽明學의 관점으로 七情論 중 哀怒喜樂을 취하여, 인본주의 관점으로 人身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四象醫學을 전개하였다. 『東醫壽世保元』 이전의 한의 학이 陰陽과 五行의 법칙으로 黃老醫學의 관점에서 우주의 運氣와 人體의 생리적 현상이 일치함을 설명한 의학이라면, 四象醫學은 心因의 원인이 각 臟器의 氣와 서로 작용하여 升降하는 心因醫學의 관점에서 접근한 의학이라고 볼 수 있다<sup>2)</sup>.

東武公은 人身의 승강기전을 仁義禮智의 性작용과 哀怒喜樂의 情작용으로 설명하였다. 性情의 작용을 事心身物<sup>3)</sup>로 분류하고, 『素問·陰陽應象大論』<sup>4)</sup>을 인용하여 兌坎巽離의 卦象으로 설명하였으며<sup>5)</sup>, 天人知行的 同類作用인 黨의 理論으로 전개하였

1) 洪元植, 中國醫學史(2판), pp. 11-359, 일증사, 서울, 1987.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회, 四象醫學, pp. 36-44, 집문당, 서울, 199

3) 『格致彙』: "貌言視聽 事四端也, 辨思問學 心四端也, 屈放收伸 身四端也, 志隨慮意 物四端也"

4) 『素問·陰陽應象大論』: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 地不滿東南 故東南方陽也 而人左手足不如右強也."

5) 東武遺稿 東武公自註 "地方即少陰 兌上絕西方也. 人倫即太陰 坎中連北方也. 此兩方闕巽左上 地有餘天不足之方. 故一曰 地方云. 蓋太陰人少陰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4/03/25 · 수정 : 2004/04/19 · 채택 : 2004/05/24

다. 각 天人知行에는 主體가 있고 喜神과 忌神의 작용이 나뉘게 되는데, 이는 『三一神誥』의 性命精이 心氣身으로, 心氣身이 感息觸으로 변화해가면서 善惡·淸濁·厚薄이 나뉘는 과정과 一脈相通한다<sup>6)</sup>. 天의 주체는 天機로, 天機의 天人知行은 각각 天時·世會·人倫·地方을 말하고, 인체에서는 각각 耳目鼻口가 해당되는데 그 작용은 聽視嗅味이고 升降浮沈의 기틀이 되며, 사회적으로 각각 仁義禮智라는 四端의 윤리로 나타난다. 人의 주체는 人事로, 人事의 天人知行은 각각 事務·交遇·黨與·居處를 말하고, 사회에서는 田宅邦國, 사람에서는 각각 肺脾肝腎의 장부로 神靈魂魄에 의한 呼吸出納 작용이 이에 해당된다. 知의 주체는 性으로 籌策·經綸·行檢·度量의 지혜를 말하며, 사회에서는 忠孝友悌, 사람에게는 頤臆臍腹인데, 意慮揆志의 의지력으로 발휘되고 이것이 과하게 되면 驕矜伐舍가 된다. 行의 주체는 命으로 識見·威儀·才幹·方略의 지혜를 말하고, 사회에서는 士農工商, 사람에게는 頭肩腰腎이 된다. 行의 작용이 지나치면 奪侈懶竊之心이 된다고 하였다<sup>7)</sup>.

이처럼 五行에서 木 속에 木火土金水가 있고 火 속에 木火土金水가 있듯이, 四象 속에 五行이 돌아가고 또 四象 속에 四象이 배속되어야 體用變에서 變의 작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天에 해당하는 耳目鼻口는 天의 木火金水이고, 이 안에 또 木火金水가 있어 津液油液, 肺脾肝腎, 頭肩腰腎, 皮筋肉骨과 神靈魂魄의 작용이 어우러져 인체가 작용한다.

東武公은 이러한 事心身物과 天人知行, 腹背表裏와 津液油液과 臍膜血精의 四海의 이론으로 天氣와 地氣를 내포한 氣水液穀이 체내에서 4단계의 진액대사를 거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sup>8)</sup>, 心因에 의한 장부의 작용과 그 결과 나타난 체상의 형태를 설명하였다<sup>9)</sup>. 또한 性情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연관된 附屬臟器, 皮筋肉骨, 津液油液, 臍膜血精과 精神氣血에 병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면서<sup>10)</sup>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存其心養其性, 修其身立其命할 것을 제시하여<sup>11)</sup> 각 체질별 장점과 단점의 극복방법을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상세히 논하고 있으며, 五臟의 神靈魂魄을 키워 神의 경지에 들어가는 內經의 仙道사상인 虛空合道에 목적을 두면서 大同세계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사상의학의 心因·體形·臟腑 이론을 十二地支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心因의 사상의학의 生理·病理작용이 驛馬·桃花·庫藏의 體用變으로 陰陽五行법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원리에 대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본 론

性에는 善惡이 없으나 心은 性에 의지하여 善惡을 生하고, 命에는 淸濁이 없으나 氣는 命에 의지하여 淸濁을 生하며, 精은 厚薄이 없으나 身은 精에 의지하여 厚薄을 生한다. 이에 인간은 心에 의지하여 喜怒哀樂을 感하고, 氣에 의지하여 寒暖燥濕을 生하며, 身에 의지하여 聲色臭味淫抵를 生한다<sup>12)</sup>. 이렇게 善惡·淸濁·厚薄이 相雜하여 性情이 발현되기에 儒家에서는 止感으로 心을 안정시켜 性에 通해 性通功完하여 天人合一할 것을 논하였고, 道家에서는 調息으로 氣를 닦아 知命하여 虛空合道할 것을 논하였으며, 佛家에서는 禁觸으로 身을 닦아 保精하고 色聲香味觸法이 空한 것을 觀하여 眞空妙有의 道理를 깨달을 것을 논하였다. 東武公은 마음의 작용을 仁義禮智의 性작용과 喜怒哀樂의 情작용으로 설명하고, 心因說을 바탕으로 인체의 生理·病理 작용이 나타나는 기전을 밝혀 실학의 입장에서 의학을 응용하고자 하였다<sup>13)</sup>.

### 1. 性情論

#### 1) 性情의 구조적 측면

東武公은 性情의 작용을 四分類의 同類作用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를 事心身物 또는 天人知行이라 하였다. 性情의 작용은 四分類로 무한히 분화되어 天人知行 안에는 각각 또 天人知行이 들어있다. 이렇듯 우주 만물은 四象 속에 또 四象이 배속되어 體用變으로 작용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14)</sup>(표1).

표 1. 四象의 구조

	主體	人體	作用	社會		
天	天	天時	耳	聽	大同 好善이 無雙	
	人	世會	目	視		
	知	人倫	鼻	嗅		
人	行	地方	口	味	仁	
	天	事務	肺	呼		國 邦 宅 田
	人	交遇	脾	納		
知	黨與	肝	吸			
知	行	居處	腎	出	田	
	天	籌策	頤	意		忠 孝 友 悌
	人	經綸	臆	慮		
行	行檢	臍	操			
行	知	度量	腹	志	各立 邪心이 無雙	
	天	識見	頭	伸		農 工 商 士
	人	威儀	肩	收		
知	才幹	腰	放			
	行	方略	腎	屈		

天人知行 중 天인 天機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칭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똑같고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해진 것이라 하여 大同이라고 표현하였고<sup>15)</sup>, 極蕩·極大·極廣·極遠한 대상으로 인식하였다<sup>16)</sup>. 이것이 人身에서는 耳目鼻口가 되는데, 耳目鼻口의 情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行路之人

人之上焦不足 即天不足西北而然即右耳目不如左耳目. 右耳目 太陰少陰之耳目 不如太陽少陽之耳目 視聽之力不及也. 世會即少陽巽下絕東方也. 天時 即太陽離虛中南方也. 此兩方闕缺右下 天有餘地不足之方. 故四曰天時云. 蓋太陽人少陽人下焦不即 地不滿東南而然即左手足不如右手足. 左手足太陽人少陽人之手足不如太陰人少陰人之手足 行去之力不及也.”

6) 최동환, 삼일신고, pp. 415-518, 지혜의 나무, 서울, 2002.  
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회, 四象醫學, pp. 44-74, 집문당, 서울, 199  
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회, 四象醫學, pp. 102-108, 집문당, 서울, 199  
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회, 四象醫學, pp. 91-96, 집문당, 서울, 199  
1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회, 四象醫學, pp. 96-97, 집문당, 서울, 199  
11) 『東醫壽世保元』: “人之劔臆臍腹之中 証世之心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腎之下 罔民之心種種暗蔽也 修其身立其命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以此”

12) 최동환, 삼일신고, pp. 415-518, 지혜의 나무, 서울, 2002.  
1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회, 四象醫學, pp. 39-40, 집문당, 서울, 199  
1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회, 四象醫學, pp. 66-69, 집문당, 서울, 199  
15) 『東醫壽世保元』: “天時大同也 事務各立也 世會大同也 交遇各立也 人倫大同也 黨與各立也 地方大同也 居處各立也”  
16) 『東醫壽世保元』: “天時極蕩也 世會極大也 人倫極廣也 地方極遠也”

이 大同於協義한 까닭에 好善하게 되고<sup>17)</sup>, 神靈魂魄이 각각 있어서 밖으로 그 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人인 人事는 事務·交遇·黨與·居處라 하였는데<sup>18)</sup>,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다른 존재의 의미므로 各立이라고 하고 人이라 하였으며<sup>19)</sup>, 이는 극복하여 性으로 가야하므로 克修·克成·克整·克治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였다<sup>20)</sup>. 人身에서는 肺脾肝腎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各立於擅利하여 惡惡하므로<sup>21)</sup> 각기 呼吸出納하는 능력으로 人身을 유지한다.

知는 籌策·經綸·行檢·度量으로<sup>22)</sup> 같고 다투어 나타나는 지혜, 즉 冲合을 극복한 지혜를 말한다. 人身에서는 頤臆臍腹에서 意慮操志의 힘으로 氣水液穀의 氣를 받아들여 津膏油液을 길러낸다. 驕·矜·伐·夸라는 邪心이 존재하므로<sup>23)</sup> 극복해야 나타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수양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니, 驕矜伐夸의 誣世之心을 存其心養其性하여 극복함에 있어<sup>24)</sup> 이를 博通이라 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널리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25)</sup>. 이는 性을 향한 것으로 驕矜伐夸의 邪心을 제거하고 慧覺이 올바르게 되어야 바른 知와 性이 나온다고 하였다<sup>26)</sup>.

행은 실천력으로, 행함에 識見·威儀·材幹·方略이라는 지혜가 있으면 행동을 통제할 수 있지만<sup>27)</sup>, 지혜가 없으면 奪侈懶竊의 怠行으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sup>28)</sup>. 이 奪侈懶竊의 罔民之心으로 인한 不肖를 면하기 위하여 怠行이 無雙함을 극복하여 修其身立其命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9)</sup>. 이를 獨行<sup>30)</sup> 또는 不動心이라 하였으니<sup>31)</sup>, 행동을 흔들림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命이라 하였는데 奪侈懶竊의 怠行이 제거되고 資業이 올바르게 되어야하므로 즉 行이 곧 命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난 때가 있고, 태어난 나라가 결정되며, 친족이 결정되고, 태어난 지방이 결정되므로 이는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타당한 것(大同)이다. 그러나 태어나면서 天機에 의한 혜택은 개개인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이에

따라 개인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各立), 살아가면서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그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널리 통하는(博通) 지혜를 길러 보편적인 응용을 하게 되고, 이것이 각자의 특징에 따라 행동으로 발휘되는 것이다(獨行).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과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선현들은 이를 알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왔는데, 東武公은 이것을 好善과 惡惡, 邪心과 怠行으로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四象醫學을 제시하였다.

2) 性情의 眞已申亥 배속

天機 中 天時は 太陽으로 南方의 離卦에 속하고, 世會는 少陽으로 東南方의 巽卦에 속하며, 人倫은 太陰으로 北方의 坎卦에 속하고, 地方은 少陰으로 西方의 兌卦에 속한다<sup>32)</sup>. 離卦는 後天八卦方位圖에서 正南方<sup>33)</sup>에 위치하여 陽極生陰의 이치로 坤卦를 지나 西方 金을 생하려는 火土의 성질을 나타낸다. 巽卦는 東南方에 위치하여 木에서 火를 생하는 과정으로 木火의 성질을 나타낸다. 坎卦는 正北方之卦로 水의 성질을 나타내고, 兌卦는 西方의 金의 성질을 나타낸다. 따라서 太陽은 火土, 少陽은 木火, 太陰은 水, 少陰은 金에 해당된다. 天地의 道에서 陽進陰退의 理致로 陽은 膨脹하는 기능이 있고 陰은 縮小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地軸은 丑未分野로 기울고, 陽速陰遲의 理致에 의하여 陽은 一步를 進하므로 두 가지 기운을 갖는다<sup>34)</sup>(그림1).

☳巽 木火	☲離 火土	☷坤
☳震		☱兌 金
☶艮	☵坎 水	☰乾

그림 1. 後天八卦圖

耳目鼻口로 天機를 살펴서 衆人이 相欺·相侮·相助·相保하는 것에 대해 哀怒喜樂의 性을 갖게 되면 각각 火土, 木火, 水, 金 기운이 작용하므로 哀氣는 直升하고, 怒氣는 橫升하며, 喜氣는 放降하고, 樂氣는 陷降한다. 太陽의 性氣가 恒欲進而不欲退하고 情氣가 恒欲爲雄而不欲爲雌하는 것은 哀氣가 直升하는 南方 離卦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요, 少陽의 性氣가 恒欲學而不欲措하고 情氣가 恒欲外勝而不欲內守하는 것은 怒氣가 橫升하는 東南方 巽卦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요, 太陰의 性氣가 恒欲靜而不欲動하고 情氣가 恒欲內守而不欲外勝하는 것은 喜氣가 放降하는 北方 坎卦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요, 少陰의 性氣가 恒欲處而不欲出하고 情氣가 恒欲爲雌而不欲爲雄하는 것은 樂氣가 陷降하는 西方 兌卦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sup>35)</sup>.

17) 『東醫壽世保元』: “耳目鼻口之情 行路之人大同於協義故好善也 好善之實極公也 極公則亦極無私也”  
 18) 『東醫壽世保元』: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19) 『東醫壽世保元』: “天時大同也 事務各立也 世會大同也 交遇各立也 人倫大同也 黨與各立也 地方大同也 居處各立也”  
 20) 『東醫壽世保元』: “事務克修也 交遇克成也 黨與克整也 居處克治也”  
 21) 『東醫壽世保元』: “肺脾肝腎之情 同室之人各立於擅利故惡惡也 惡惡之實極無私也 極無私則亦極公也”  
 22) 『東醫壽世保元』: “頭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23) 『東醫壽世保元』: “頭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24) 『東醫壽世保元』: “人之頤臆臍腹之中 誣世之心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25) 『東醫壽世保元』: “籌策博通也 識見獨行也 經綸博通也 威儀獨行也 行檢博通也 材幹獨行也 度量博通也 方略獨行也”  
 26) 『東醫壽世保元』: “天生萬民性以慧覺 萬民之生也 有慧覺則生無慧覺則死 慧覺者德之所由生也”  
 27) 『東醫壽世保元』: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臂有方略”  
 28) 『東醫壽世保元』: “識見必無奪也 威儀必無侈也 材幹必無懶也 方略必無竊也”  
 29) 『東醫壽世保元』: “人之頭肩腰臂之下 罔民之心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然後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30) 『東醫壽世保元』: “籌策博通也 識見獨行也 經綸博通也 威儀獨行也 行檢博通也 材幹獨行也 度量博通也 方略獨行也”  
 31) 『格致藥』: “篇名獨行何義耶 曰好而知其惡則中立而不倚 惡而知其美則和而不流 如此者自然獨行 獨行者不動心”

32) 東武遺稿 東武公自註 “地方即少陰 兌上絕西方也. 人倫即太陰 坎中連北方也. 世會即少陽 巽下絕東方也. 天時即太陽 離虛中南方也”  
 33) 金碩鎮, 『周易講解(上)』, pp. 15-59, 大有學堂, 서울, 1994.  
 34) 李正來: 『太醫醫學全集(三)』, pp. 2159-2191, 第一文化社, 서울, 1989.  
 35) 『東醫壽世保元』: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學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 “太陽之

『黃帝內經』에서 哀情은 下降하고 喜樂之情은 상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原因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東醫壽世保元』에서 哀怒之氣는 上升하고 喜樂之氣는 下降한다 하였는데 이는 결과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喜樂의 感情은 욕구가 해소될 때 일어나는 감정이므로 下降하고, 哀怒의 感情은 욕구에 不滿意이 있을 때 일어나는 感情이므로 상승한다<sup>36)</sup>. 『東醫壽世保元(草本卷)』에서는 太陽人의 마음은 하고자 하는 바를 매번 얻지 못하니 화나는 마음을 항상 胸中에 간직하고, 少陰人의 마음은 하고자 하는 바를 매번 얻으려하니 즐거운 마음을 항상 胸中에 간직하며, 少陽人의 마음은 하고자 하는 바를 크게 얻지 못하니 걱정하는 마음을 항상 胸中에 간직하고, 太陰人의 마음은 하고자 하는 바를 크게 얻으려하니 두려운 마음을 항상 胸中에 간직한다고 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sup>37)</sup>. 따라서 哀怒喜樂 중 哀氣는 直升之氣로 寅木의 성질과 같으므로 寅에 배속하고, 怒氣는 橫升之氣로 巳火의 성질과 같으므로 巳에 배속하며, 喜氣는 放降之氣로 申金의 성질과 같으므로 申에 배속하고, 樂氣는 陷下之氣로 亥水의 성질과 같으므로 亥에 배속한다. 마찬가지로 溫氣를 木氣인 寅木으로, 熱氣를 火氣인 巳火로, 涼氣를 金氣인 申金으로, 寒氣를 水氣인 亥水로 표현할 수 있다. 仁義禮智의 智를 寅木으로, 禮를 巳火로, 義를 申金으로, 仁을 亥水로 보고 각각의 작용을 寅巳申亥의 驛馬性의 氣作用으로 나타낼 수 있다. 四象에서 性情의 五行 배속은 일반적인 五行에서의 性情배속과는 약간 다르게 설정되었다. 智는 본인의 修養인 경우에는 水에 배속되지만 밖으로 표출되어 智慧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木에 배속된다. 仁은 본인의 修養인 경우에는 木에 배속되지만 밖으로 표출되어 仁愛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水에 배속된다. 禮는 본인의 修養인 경우와 밖으로 표출하는 경우 모두 火에 배속되는데, 이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義는 본인의 修養인 경우와 밖으로 표출하는 경우 모두 金에 배속되는데, 이는 본인의 내재된 굳건한 의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哀怒喜樂은 또한 각각 離卦, 巽卦, 坎卦, 兌卦에 해당되어 火土之氣, 木火之氣, 水氣, 金氣에 해당된다. 哀怒喜樂은 性情이 작용하는 성질로 볼 때에는 寅巳申亥에 배속되고, 性情의 體로 볼 때에는 火土, 木火, 水, 金에 배속된다. 陽人은 욕구불만이 그대로 밖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少陽 木火, 太陽 火土로 나타나지만, 陰人은 욕구 충족이 탐닉에 의해 안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太陰 水, 少陰 金으로 나타난다(표2).

표 2. 哀怒喜樂의 寅巳申亥배속

哀氣	直升之氣	火土之氣	寅 ↑	溫	智
怒氣	橫升之氣	木火之氣	巳 ↗	熱	禮
喜氣	放降之氣	水之氣	申 ↘	涼	義
樂氣	陷下之氣	金之氣	亥 ↓	寒	仁

작용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억제·조절하는 官과 같은 것이

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而不欲外勝

36) 李正來, 『太醫壽世保元(草本卷)』, pp. 2159-2191, 第一文化社, 서울, 1989.

37) 『東醫壽世保元(草本卷)』: “太陽人之心每不得所欲而忿憤之心恒放於胸中也, 少陰之心每欲得所欲而好樂之心恒放於胸中也, 少陽之心大不得所欲而憂患之心恒放於胸中也, 太陰之心大欲得所欲而恐懼之心恒放於胸中也”

있어야 하니 四象醫學에서는 이러한 작용을 衛之한다고 하였다. 木은 金의 官작용에 의해 지배되고 조절되기 때문에 智는 酉金이 衛之한다. 큰 불은 언제나 맞불로 조절하듯이 불은 불로 다스리므로 巳火를 다스리는 것은 午火이기 때문에 禮는 午火가 衛之한다. 金은 木으로 다스려야 相濟를 이루므로 申金은 卯木을 相濟로 삼기 때문에 義는 卯木이 衛之한다. 큰 물은 물길을 잡아 주면 다스려지기 때문에 亥水를 다스리는 것은 子水가 되므로 仁은 子水가 衛之한다. 氣의 作用에 있어서 驛馬와 桃花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辰戌丑未의 庫藏은 十二地支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조용히 貯藏·造化·均衡을 이루며 變化의 중심축으로 變을 조절한다. 그렇기 때문에 韓醫學에서도 脾臟을 至陰(여기서의 至는 上下往來의 뜻)이라 하였는데<sup>38)</sup>, 이는 辰戌丑未 안에는 十干이 支藏干으로 숨어있기 때문이다.

## 2. 十二地支의 臟腑配屬

### 1) 寅巳申亥의 臟腑配屬

肺氣는 直而伸<sup>39)</sup>하니 木氣가 외부에서는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나 땅속에서는 옆으로 퍼지려는 성질을 가진 것과 같다. 肺는 외부와 접촉이 잦아 燥熱·燥寒해지기 쉽기 때문에 燥病이 오기 쉽다. 脾氣는 栗而包하니 火氣가 옆으로 퍼지면서 올라가는데 안으로 모여드는 성질이 있는 것과 같다. 脾는 원래 寒濕하므로 胃腸의 燥熱한 氣運을 받아야 균형이 유지되는데, 脾에는 왕래하는 음식물에 의하여 쉽게 傷하므로 濕熱로 발전되어 燥熱로 가기 쉽다. 肝氣는 寬而緩하니 肝의 將軍之官의 機能인 金氣의 옆으로 퍼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과 지탱하려는 성질과 같다. 肝은 밖으로 疏泄을 많이 하고 안으로는 혈액을 저장하기 때문에 涼해지기 쉽다. 腎氣는 溫而畜하니 水氣가 흘러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과 모여들어 쌓이려는 성질이 있는 것과 같다. 腎은 腎陽을 상승시켜야 하지만 저장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精이 寒해지기 쉽다. 『東醫壽世保元(草本卷)』에서는 이를 肺象木, 脾象火, 肝象金, 腎象水로 설명하였다<sup>40)</sup>. 이는 기존의 肝木·心火·脾土·肺金·腎水의 작용과는 같지 않지만, 體·用·變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陰陽五行은 자연의 현상을 풀어내는 하나의 도구·기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의 현상을 상황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여 五行 또는 干支에 배속할 수 있다.

또한 寅木은 높이 자라나서 가장 위에 있으니 上焦로 보고, 巳火는 표층에서 피어 올라가니 中上焦로 보며, 申金은 땅 위아래에 넓게 퍼지니 中下焦로 보고, 亥水는 땅 아래로 흘러가니 下焦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肺·胃腸은 寅木에, 脾·胃는 巳火에, 肝·小腸은 申金에, 腎·大腸은 亥水에 배속할 수 있다.

### 2) 酉午卯子의 臟腑配屬

모든 만물은 體用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肺의 體는 金이지만 用은 木으로, 4·9金의 4는 수렴하고 9는 발산하며, 肝의 體는 木이지만 用은 金으로, 3·8木의 3은 발산하고 8은 수렴한다. 肺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데, 내쉬는 것은 발산 즉 木氣의 작용이고

38) 『素問·金匱真言論』,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

39) 『東醫壽世保元』, “肺氣直而伸 脾氣栗而包 肝氣寬而緩 腎氣溫而畜”

40) 『東醫壽世保元(草本卷)』, “肺象木 脾象火 肝象金 腎象水”

들이마시는 것은 金氣의 수렴작용이다. 肝은 영양분을 소설하고 피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데, 陳世은 木의 발산작용이고 肝藏血의 저장은 金의 수렴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心은 중심에서 피를 생성하고 공급하며 오장육부에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2·7火의 2는 수렴하고 7은 발산한다. 心陰의 작용은 血에 생명력을 넣는 것이고, 心陽의 작용은 압축력에 의해 골고루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心은 중심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火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水와 既濟를 이룬다. 脾는 5·10土로 5는 발산하고 10은 수렴하여, 統血하는 작용으로 新舊 血을 조절하고 津液을 四肢末로 보내는 작용과 五臟六腑의 津液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腎은 1·6水의 1은 발산하고 6은 수렴하는 성질의 體用을 가지고, 下焦에서 精을 저장하는 한편, 心과 肺에 水를 雲霧처럼 피어오르게 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본성인 水를 가지고 있는 濕이 心陽의 火와 既濟를 이룸으로서 안개처럼 피어올라 心·肺·脾胃·肝腎의 燥濕이 조절된다. 이렇듯 人身의 升降浮沈·呼吸出納과 氣水液穀의 분배는 天氣와 地氣에 의해 조절되고 人氣인 性情에 의해 유지 보존되는데, 이는 河洛義文의 작용에 의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인다.

哀氣는 火土의 기운으로 상승이 極하여 生金하고 다시 하강하는 性情이고, 怒氣는 木火의 기운으로 生土하고 발산하는 性情이다. 喜氣는 水의 기운으로 하강이 極하여 生木하고 다시 상승하는 性情이며, 樂氣는 金의 기운으로 金生水하고 하강하는 性情이다<sup>41)</sup>. 따라서 자연의 운기작용에서도 언제나 자체 내에 承氣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과도하게 향진되는 것을 제어하는 官의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上焦의 寅木 안에는 金氣의 承氣가 포함되어 있고, 中上焦의 巳火는 발산하는 기운 속에 수렴하는 水氣의 承氣가 내포되어 있으며, 中下焦의 申金 안에는 火氣의 承氣가 내포되어 있고, 下焦의 亥水에는 土氣의 承氣가 내포되어 있다. 만물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힘이 있어서 五行은 각각의 自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五行 안에 스스로 갖추어져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쓰므로 때에 따라 五行 중 하나 또는 두개를 取한다.

五臟은 人身의 중심이면서 자체는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陰臟이라 하고, 六腑는 陽으로 장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陽腑라 하니 六腑에는 用的인 면이 드러나게 된다. 胃脘은 上焦에居하면서 津을 생산하고 온몸에 溫氣와 津을 나르는 역할을 하고, 胃는 中上焦에居하면서 膏를 생산하고 온몸에 熱氣와 膏를 나르는 역할을 한다. 小腸은 中下焦에居하면서 油를 생산하고 온몸에 涼氣와 油를 나르는 역할을 하고, 大腸·膀胱은 下焦에居하면서 液을 생산하고 온몸에 寒氣와 液液을 나르는 역할을 한다. 六腑는 음식물의 거친 양분을 人身에 필요한 정미로운 양분으로 만드는 기초 영양분 섭취 작용을 하는데, 五臟과 六腑의 溫熱涼寒이 한 곳으로 편중되면 병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 조절을 하게 된다. 이 기능을 東武公은 水穀이 納於胃하여 脾가 衛之하고 出於大腸함에 腎이 衛之한다고 하였다. 또한 脾腎과 肝肺가 迭爲補瀉하고 迭爲進退한다고 하여 沖合과 體用의 작용으로 설명하였다<sup>42)</sup>. 음식물의 消化吸收와 分配排世에 있어서 胃脘의 작

용에서는 寅의 直升之氣 성질이 나타나고, 胃의 작용에서 巳의 橫升之氣 성질이 나타나며, 小腸의 작용에서 申의 放降之氣 성질이 나타나고, 大腸·膀胱에는 亥의 陷下之氣 성질이 나타난다. 그런데, 木을 통제하는 것은 金이요, 金을 相濟하는 것은 木이므로 酉金이 寅을 衛之하고 申金은 卯木으로 相濟를 삼는다. 火는 火로 통제하고 水로 既濟를 이루고, 水는 水로 통제하되 火를 行하여 물길로 통제하므로 水火는 水火가 통제하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 巳火를 다스리는 것은 午火의 桃花와 장성의 작용으로 보고, 亥水는 물길로 물을 다스리니 子水로 衛之한다고 본다. 따라서 胃脘(寅), 胃(巳), 小腸(申), 大腸(亥)를 用으로, 肺(酉), 脾(午), 肝(卯), 腎(子)을 體의 衛之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3).

표 3. 四焦의 十二地支배속

四焦	四腑(用)	驛馬	哀怒喜樂之氣	桃花	四臟(體)
上焦	胃脘	寅木	火土生金	酉金	肺
中上焦	胃	巳火	木火生土	午火	脾
中下焦	小腸	申金	水生木	卯木	肝
下焦	大腸	亥水	金生水	子水	腎

脾는 영양분의 저장·분배기능을 담당하는데, 心의 힘을 빌려 血을 통해 五臟六腑의 필요한 곳에 운반하는 것으로 脾土는 중앙의 은행역할을, 心은 운반역할을 한다. 이같이 心의 작용은 火에 배속되지만 마음의 중심 작용을 할 때에는 太極에 배속되고, 脾는 저장 작용을 할 때에는 중앙에 배속되지만 분배 작용을 할 때에는 心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心의 역할이 드러나게 된다. 東武公은 火土의 同胞작용에 따라 心과 脾의 작용을 五行이론과 다르게 배치하여 午火를 脾로 본 것이다<sup>43)</sup>.

驛馬는 움직임·역동성·추진력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히 거친 부분이 있고, 桃花는 끈끈함·장식력·치장·섬세함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驛馬는 六腑에서 거친 氣水液穀을 津膏油液으로 바꾸고, 桃花는 五臟에서 津膏油液을 정미로운 臟膜血精으로 만들어서 神靈魂魄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寅巳申亥 驛馬와 酉午卯子 桃花의 氣작용은 겉으로 드러나나 辰戌丑未 庫藏은 十二地支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용히 저장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변화의 축으로 變을 조절한다. 모든 臟器는 沖合을 할 때 辰戌丑未에 함장되어 있는 물질을 보내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辰戌丑未는 은행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이때 膽은 올바르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中正之官의 역할을 수행한다.

肺脾肝腎은 활동력을 가질 때는 寅巳申亥의 驛馬에 배속되고, 暗藏되어 작용할 때는 子午卯酉의 桃花에 배속되며, 에너지를 貯藏할 때는 辰戌丑未의 庫藏에 배속된다.

3) 寅巳申亥의 事物배속

『壽世保元』에서 언급된 사물을 寅巳申亥에 배속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4, 5).

42) 『東醫壽世保元』: “水穀納於胃而脾衛之 出於大腸而腎衛之 脾腎者出納水穀之府庫而迭爲補瀉者也 氣液呼於胃脘而肺衛之 吸於小腸而肝衛之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而迭爲進退者也”

43) 李正來, 太韓醫學全集(三), pp. 2159-2191, 第一文化社, 서울, 1989.

41) 李正來, 太韓醫學全集(三), pp. 2159-2191, 第一文化社, 서울, 1989.

표 4. 事物의 寅巳申亥 배속

	寅	巳	申	亥
四臟	肺	脾	肝	腎
四腑	胃脘	胃	小腸	大腸
四官	耳	目	鼻	口
인체 前面	頤	臍	臍	腹
인체 後面	頤	肩	腰	腎
	天時	世會	人倫	地方
天機	輕清 無形之聲 浮動 有像之色	沈靜 無跡之像 重濁 有質之滋		
	極蕩	極大	極廣	極邈
四象	太陽	少陽	太陰	少陰
後天八卦	離	巽	坎	兌
	事務	交遇	黨與	居處
人事	欺	侮	助	保
	克修	克成	克整	克治
	籌策	經綸	行檢	度量
知(性)	嗅思之才	味辨之才	聽學之才	視問之才
邪心	驕	矜	伐	夸
行(命)	識見	威儀	材幹	方略
怠行	奪/抱	侈	濫	竊/慾
天	智	禮	義	仁
世	忠	孝	友	悌
人	農	工	商	處
地	國	邦	宅	田
人趨心慾	鄙人	薄人	貧人	鄙人
四臟의 氣	直而伸	乘而包	寬而緩	溫而奮
四臟의 主	呼	納	吸	出
哀怒喜樂의 氣	直升	橫升	放登	陷降
四臟의 住着處	吞曲	腰脇	胸腋	背任貞

표 5. 事物의 寅巳申亥 배속

	寅	巳	申	亥
四象人 性氣	恒欲進而不欲退	恒欲舉而不欲措	恒欲靜而不欲動	恒欲處而不欲出
四象人 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恒欲外勝而不欲內守	恒欲內守而不欲外勝	恒欲爲雌而不欲爲雄
四象人의 性	使使然하여 獨延納也	疾疾然하여 獨式度也	卓卓然하여 獨教誘也	坦坦然하여 獨撫循也
四象人의 知	善忠	知愚	勤清	能否
四臟 早위	任貞下背上	腎	腰	腰脊下
四腑 早위	頤下胸上	臍	臍	臍腹下
四焦 早위	背上胸上以上	背膈之間	腰臍之間	脊下臍下以下
四腑의 형상	通於口鼻	廣大而包容	狹窄而屈曲	通於肛門
四腑의 기능	上升	停蓄	消導	下降
四腑의 氣	溫	熱	涼	寒
前四海	津海/舌下	膏海/腋間兩乳	油海/臍	液海/前陰毛際之內
前四海의 清氣	神	氣	血	精
後四海	髓海/頭腦	膜海/背脊	血海/腰脊	精海/膀胱
外形	皮毛	筋	肉	骨
肺脾肝腎之用	頭	手	腰	足
後四海 藏	學	問	思	辨
前四海 藏	神	靈	魂	魄
一生	幼	少	壯	老
好	聞見	勇猛	交結	計策
能	愛敬	鷹捷	修筋	秘密
豪傑	好文字	敬長老	能汎愛	保可人
四堵堵	酒	色	財	權
직업	農畝之人	市井之人	山谷之人	讀書之人
人之宜	勤幹	簡約	聞見	警戒
사상의 性質	疏通	剛武	成就	端重

3. 干支의 상호작용

천지만물은 모두 太極(靈魂)을 갖고 자체 내의 陰陽을 가지

면서 상대와 陰陽 관계에 있고, 三才의 작용 중 한 곳을 담당하면서 三才의 기능을 모두 가지며, 四象을 모두 가지면서 四象 중 하나의 특이한 속성을 갖고, 五行의 기능을 모두 가지면서 五行의 작용 중 하나의 특이한 속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東武는 天人知行으로 표현하면서 臟腑를 형태와 작용으로 설명하였다. 心에는 心陰의 藏神·生血작용과 心陽의 血液공급·心主血脉작용이 있고, 肝에는 肝陰의 藏血작용과 肝陽의 疏泄이 있으며, 脾에는 脾陰의 統血·藏營작용과 脾陽의 運化작용이 있고, 肺는 肺陰의 藏精·主皮毛작용과 肺陽의 主氣작용이 있으며, 腎은 腎陰의 藏精작용과 腎陽의 溫煦·推動작용이 있다. 胃脘에는 陰의 藏意작용과 陽의 溫煦·薰蒸작용이 있고, 胃에는 胃陰의 受納·腐熟작용과 胃陽의 降濁작용이 있으며, 小腸에는 小腸陰의 受盛작용과 小腸陽의 化物작용이 있고, 大腸에는 大腸陰의 傳導작용과 大腸陽의 變化작용이 있으며, 膀胱에는 膀胱陰의 藏津液작용과 膀胱陽의 薰蒸작용이 있다. 이런 각각의 陰陽작용은 合刑冲破害怨嘆에 의해 원활하게 돌아가니, 合·刑·冲·破·害·怨嘆(44)(45)(46)(표6) 등이 없으면 만물은 生長化收藏을 영위하지 못한다.

표 6. 合刑冲破害怨嘆

六合	寅·亥, 巳·申, 午·未, 辰·酉, 卯·戌, 子·丑
刑	寅·巳·申, 丑·戌·未 三刑, 子卯相刑 亥·亥, 酉·酉, 午·午, 辰·辰 自刑
冲	寅·申, 巳·亥, 子·午, 卯·酉, 辰·戌, 丑·未
破	寅·亥, 巳·申, 子·酉, 午·卯, 戌·未, 丑·辰
害	寅·巳, 申·亥, 卯·辰, 子·未, 丑·午, 酉·戌
怨嘆	寅·酉, 申·卯, 子·未, 丑·午, 辰·亥, 巳·戌

1) 六合의 작용

形을 완성시키고, 유지시키며, 안정시키고, 서로 연결하는 통로작용을 한다. 이완과 단결, 멈춤을 의미한다.

2) 刑의 작용

단단한 合을 造化하고,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며, 움직이게 한다. 刑은 형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현상을 말하고, 법의 집행, 법에 의한 통제, 질서, 규칙, 수축, 대결, 수정을 의미한다. 刑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사지골절통, 사지의 뒤틀림, 꼬이는 증상 등의 형벌을 가하는 증상이고, 수술은 丑戌未 三刑과 관련된단.

3) 冲의 작용

충돌, 발전, 변화, 확장을 의미한다. 冲은 급성으로 급격한 변화를, 克은 대치 상태와 오행의 적당한 조화를 유발한다. 冲은 다듬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 현상으로, 冲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터져서 나오는 증상으로, 鬱 중에서 冲까지 가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下血·衄血이 있다. 갑자기 말라비틀어진다든지, 四肢가 구급하거나, 사지마비, 膚皸증상 등은 冲을 당한데 刑罰까지 겸해진 증상들이다.

4) 破의 작용

고립과 헤어짐, 변동의 작용을 하면서 불필요한 모서리를 제거하고 견제한다.

44) 申六泉, 四柱鑑定法秘訣集, pp. 3-1030, 甲乙堂, 대구, 1993.  
45) 大韓曆法研究所, 滴天髓闡微, pp. 3-280, 南山堂, 서울, 1994.  
46) 沈載烈, 淵海子平精解, pp. 11-28, 明文堂, 서울, 1999.

5) 害의 작용

속에서 병드는 벌레·균 같은 것을 가려내는 작용으로 미리 안 좋은 害가 올 것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도 害의 작용이다. 따라서 害에는 앞으로 다가올 害를 예방하는 작용, 실제로 害를 당해 장기를 상하는 작용이 있다. 인체에 기생충이 있음으로써 인체 자체 방어를 하게 되어 큰 힘을 발휘하는데, 만약 나쁘게만 생각하면 怨嗔의 작용이 되는 것이다.

6) 怨嗔의 작용

怨嗔은 만성적이며 고질적이며, 끈질기다.

폐이 있으므로 장기가 규칙의 지배를 받게 되고, 破작용으로 자축거리면서 변동 작용을 일으키고 모난 것이 걸러지며, 害의 작용으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소모되어 없어지는 것이 있으므로 生滅이 있게 된다. 숨이 되어야 장기가 유지되며, 숨으로 부족한 것을 서로서로 빌려 온다. “以我之短으로 學彼之長하고 以我之長으로 教彼之短하면 同時助成하여 功歸正故로 曰 無奪·無修·無懶·無竊之謂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습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沖을 숨으로 극복해야 지혜가 나오는 것이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줄 모른다. 太陽人의 籌策이 가장 뛰어난지만 太陰人의 籌策을 강조한 것은 寅申 沖을 극복해서 자기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太陰之領에 宜戒驕心이니 太陰之領에 若無驕心이면 絶世之籌策이 必在此也”라고 하였는데, 太陰人은 원래 籌策이 없는 사람이지만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서 寅申 沖을 극복하고 나면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인 籌策이 생기게 된다.

4. 津液代謝

東武公은 인체는 無形無象한 것으로 외부의 有象有質한 물질까지 받아들여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하였는데, 이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天					天								
	耳(寅)		目(巳)		鼻(申)		口(亥)						
地	知	頤	胃脘(寅)	氣					肺(酉)	人	臍	神	
		臍	胃(巳)	水	辰戌				脾(午)		膜	靈	
		臍	小腸(申)	液	丑未				肝(卯)		血	魂	
		腹	大腸(亥)	穀					腎(子)		精	魄	
人					頭(寅)	手(巳)	腰(申)	足(亥)					
					皮(寅)	筋(巳)	肉(申)	骨(亥)					
					頭	肩	腰	腎					
												行	

그림 2. 『동의수세보원』의 진액대사

1단계는 耳目鼻口의 작용으로 無形無象에서 有質有象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2단계는 六腑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天氣와 地氣를 합해 氣水液穀을 津膏油液으로 분류시키는 작용이며, 3단계는 六腑에서 받은 津膏油液을 耳目鼻口와 神靈魂魄의 도움으로 精神氣血로 만드는 작용이고, 4단계는 肺脾肝腎이 耳目鼻口·意慮操志·神靈魂魄의 도움으로 精神氣血을 臍膜血精으

로 만드는 단계이다. 음식물이 四腑에 들어가면 氣化·水化·液化·穀化된 후 津膏油液이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津海·膏海·油海·液海가 되며, 이것이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의 힘으로 끌어올려져 神氣血精이 된다. 여기에 神靈魂魄이 작용하여 臍膜血精이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 臍海·膜海·血海·精海가 된다<sup>47)</sup>. 이 四海의 진기를 이용하여 인체를 영위하는데, 이러한 대사작용은 각 四焦에서 寅巳申亥, 子午卯酉, 辰戌丑未의 合刑冲破害를 통한 상호보완 속에서 이루어진다(그림2).

1) 上焦(寅)

上焦인 寅의 진액대사에는 天에 해당되는 耳, 知(性)에 해당되는 頤, 人에 해당하는 肺, 身(行)에 해당하는 頭를 중심으로 寅巳申亥의 작용이 모두 동원된다.

水穀이 胃에 들어오면 胃之體는 廣大而包容하여 水穀之氣를 停畜하고, 薰蒸하여 熱氣를 만든다. 胃脘은 通於口鼻하므로 이중 輕淸한 것은 胃脘으로 上升하여 溫氣가 된다. 水穀溫氣는 胃脘에서 化津되고 舌下로 들어가 津海가 된다. 耳가 廣博天時하는 聽力으로 津海의 淸氣를 끌어내 上焦를 充滿하게 하고, 神을 만들며, 頭腦에 注入하여 臍海를 형성하여 神의 집이 되게 하므로 神이 안정된다. 耳는 神에 속하고 無形之物이므로 天時의 輕淸無形之聲을 들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臍海가 형성되면 肺가 鍊達事務之衰力으로 臍海의 淸汁을 吸得하여 肺元을 자양하고, 안으로 津海를 擁護하여 그 氣를 鼓動시켜 津을 凝聚시킨다. 이는 肺主呼하므로 呼하면 반드시 應對之理가 있게 되어 直升之衰力으로 能達事務之欺하기 때문이다. 臍海의 濁滓는 頭가 直伸之力으로 鍛鍊하여 皮毛을 이루고, 津海의 濁滓는 胃脘이 上升之力으로 이를 취하여 자신을 보익한다. 上焦에서 胃脘은 頤의 藏意의 힘과 籌策의 智慧로, 耳는 廣博於天時하는 聽力의 힘으로, 肺는 寅에 해당하는 敏達於事務하는 힘과 衰性而遠散하는 작용력과 胃脘을 衛之하여 진액을 과도하게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는 酉의 조절력으로 溫氣의 상승지기를 끌어 모아 淸濁을 나누고 각 海 및 臟腑를 충실하게 한다. 이 과정은 寅中에 함유된 天人知行의 寅의 作用, 즉 直升之力和 酉金의 衛之작용이 전부 동시에 발휘되어야 알맞게 조절이 된다. 前四海의 津海에는 藏意하고, 後四海의 臍海에는 藏神하며, 頭腦의 臍海는 肺의 근본이 되고, 舌之津海는 耳의 근본이 된다. 心은 一身의 主宰가 되므로, 哀怒喜樂의 中庸에 거하고 耳目鼻口가 遠聽·大視·廣臭·沈味하면 精神氣血이 생할 것이요, 學問思辨을 정지중화하면 津膏油液이 충만해진다. 이에 따라 水穀의 溫氣로 津과 臍라는 활력소가 생기게 되고, 이 활력소는 胃脘·舌下·頤·耳·頭腦·肺·皮毛의 肺臟을 보익한다.

2) 中上焦(巳)

中上焦인 巳의 진액대사에는 天에 해당되는 目, 知(性)에 해당되는 臍, 人에 해당하는 脾, 身(行)에 해당하는 肩을 중심으로 寅巳申亥의 작용이 모두 동원된다. 水穀이 胃에 들어오면 胃之體는 廣大而包容하기 때문에 水穀之氣를 停畜하고, 여기에서 薰蒸하여 熱氣를 만들면, 이 熱氣는 胃에서 化膏되어 臍間兩乳로 들어가 膏海가 된다. 目이 廣博世會하는 視力으로 膏海의 淸氣를

4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회, 四象醫學, p 100-115, 집문당, 서울, 1997

끌어내 中上焦를 充滿하게 하고 氣를 만들며, 背脊에 注入하여 膜海를 형성하여 靈의 집이 되게 하므로 靈이 안정된다. 目は 靈에 속하고 有像之物이므로 世會의 浮動 有像之色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膜海가 형성되면 脾가 鍊達交遇之怒力으로 膜海의 清汁을 吸得하여 脾元을 자양하고, 안으로 膏海를 擁護하여 그 氣를 鼓動시켜 膏를 凝聚시킨다. 이는 脾主納하므로 納하면 반드시 盈虛之理가 橫升之怒力으로 能合交遇之侮하기 때문이다. 膜海의 濁滓는 手가 能收之力으로 鍛鍊하여 筋을 이루고, 膏海의 濁滓는 胃가 停蓄之力으로 이를 취하여 자신을 보익한다. 中上焦에서 胃는 臆의 藏慮의 힘과 經綸의 智慧로, 目は 廣博於世會하는 視力의 힘으로, 脾는 巳에 해당하는 勇統於交遇하는 힘과 怒性이 宏抱하는 작용력과 胃를 衛之하여 진액을 과도하게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는 午의 조절력으로 熱氣를 끌어 모아 清濁을 나누고 각 海 및 臟腑를 충실하게 한다. 이 과정은 巳 中에 함유된 天人知行의 巳의 作用 즉 橫升之力和 午火의 衛之작용이 전부 동시에 발휘되어야 알맞게 조절이 된다. 前四海의 膏海에는 藏慮하고, 後四海의 膜海에는 藏靈하며, 背脊의 膜海는 脾의 근본이 되고, 臆間兩乳의 膏海는 目的 근본이 된다. 心은 一身의 主宰가 되므로, 哀怒喜樂의 中庸에 거하고 耳目鼻口가 遠聽·大視·廣臭·沈味하면 精神氣血이 생하고, 學問思辨을 정직중화하면 津膏油液이 충만해진다. 이에 따라 水穀의 熱氣로 腎과 膜이라는 활력소가 생기고, 이 활력소는 胃·兩乳·臆·目·背脊·筋의 脾黨을 보익한다.

### 3) 中下焦(申)

中下焦인 申의 진액대사에는 天에 해당되는 鼻, 知(性)에 해당되는 膻, 人에 해당 하는 肝, 身(行)에 해당하는 腰를 중심으로 寅巳申亥의 작용이 모두 동원된다. 小腸之體는 狹窄而屈曲하기 때문에 水穀이 小腸에 들어오면 水穀之氣를 消導하고, 여기에서 平淡으로 涼氣를 만들면 小腸에서 化油하고 膻로 들어가 油海가 된다. 鼻는 廣博人倫하는 嗅力으로 油海의 清氣를 끌어내 中下焦를 充滿하게 하고 血을 만들며, 腰脊에 注入하여 血海를 형성하여 魄의 집이 되게 하므로 魄이 안정된다. 鼻는 魄에 속하고 無跡之物이므로 人倫의 沈靜 無跡之像을 맡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血海가 형성되면 肝이 鍊達黨與之喜力으로 血海의 清汁을 吸得하여 肝元을 자양하고, 안으로 油海를 擁護하여 그 氣를 鼓動시켜 油를 凝聚시킨다. 이는 肝主吸하므로 吸하면 반드시 致來之理가 放降之喜力으로 雅立黨與之助하기 때문이다. 血海의 濁滓는 腰가 寬放之力으로 鍛鍊하여 肉을 이루고, 油海의 濁滓는 小腸이 消導之力으로 이를 취하여 자신을 보익한다. 中下焦에서 小腸은 膻의 藏操의 힘과 行檢의 智慧로, 鼻는 廣博於人倫하는 嗅力의 힘으로, 肝은 申에 해당하는 雅立於黨與하는 힘과 喜性이 廣張하는 작용력과 小腸을 衛之하여 진액을 과도하게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는 卯의 조절력으로 涼氣를 끌어 모아 清濁을 나누고 각 海 및 臟腑를 충실하게 한다. 이 과정은 申 中에 함유된 天人知行의 申의 作用 즉 放降之力和 卯木의 衛之작용이 전부 동시에 발휘되어야 알맞게 조절이 된다. 前四海의 油海에는 藏操하고, 後四海의 血海에는 藏魂하며, 腰脊의 血海는 肝의 근본이 되고, 膻의 油海는 鼻의 근본이 된다. 心은 一身의 主宰가

되므로, 哀怒喜樂의 中庸에 거하고 耳目鼻口가 遠聽·大視·廣臭·沈味하면 精神氣血이 생하고, 學問思辨을 정직중화하면 津膏油液이 충만해진다. 이에 따라 水穀의 涼氣로 油와 血이라는 활력소가 생기고, 이 활력소는 小腸·膻·鼻·腰脊·肉의 肝黨을 보익한다.  
4) 下焦(亥)

下焦인 亥의 진액대사에는 天에 해당되는 口, 知(性)에 해당되는 腹, 人에 해당 하는 腎, 身(行)에 해당하는 臀을 중심으로 寅巳申亥의 작용이 모두 동원된다. 小腸之體는 狹窄而屈曲하기 때문에 水穀이 小腸에 들어오면 水穀之氣를 消導하고, 여기에서 平淡으로 涼氣를 만들면, 大腸이 肛門과 通하므로 涼氣 중에서 質重한 것이 大腸으로 내려가 寒氣가 된다. 寒氣는 大腸에서 化液되고 前陰毛際之內로 들어와 液海가 되는데 口가 廣博地方하는 味力으로 液海의 清氣를 끌어내 下焦를 充滿하게하고 精을 만들며, 膀胱에 注入하여 精海를 형성하여 魄의 집이 되게 하므로 魄이 안정된다. 口는 魄에 속하고 有質之物인 까닭에 地方의 重濁 有質之滋를 맛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精海가 형성되면 腎이 鍊達交遇之樂力으로 精海의 清汁을 吸得하여 肺元을 자양하고, 안으로 液海를 擁護하여 그 氣를 鼓動시켜 液을 凝聚시킨다. 이는 腎主出하므로 出하면 반드시 竭盡之理가 있어 陷降之樂力으로 能定居處之保하기 때문이다. 精海의 濁滓는 足이 屈強之力으로 鍛鍊하여 骨을 이루고, 液海의 濁滓는 大腸이 下降之力으로 이를 취하여 자신을 보익한다. 下焦에서 大腸은 前陰의 藏操의 힘과 度量의 智慧로, 口는 廣博於地方하는 味力의 힘으로 腎은 亥에 해당하는 恒定於居處하는 힘과 樂性이 深確하는 작용력과 大腸을 衛之하여 진액을 과도하게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는 子의 조절력으로 寒氣를 끌어 모아 清濁을 나누고 각 海 및 臟腑를 충실하게 한다. 이 과정은 亥 中에 함유된 天人知行의 亥의 作用 즉 陷降之力和 子水의 衛之작용이 전부 동시에 발휘되어야 알맞게 조절이 된다. 前四海의 液海에는 藏志하고, 後四海의 精海에는 藏魄하며, 膀胱의 精海는 腎의 근본이 되고, 前陰의 液海는 口의 근본이 된다. 心은 一身의 主宰가 되므로, 哀怒喜樂의 中庸에 거하고 耳目鼻口가 遠聽·大視·廣臭·沈味하면 精神氣血이 생하고, 學問思辨을 정직중화하면 津膏油液이 충만해진다. 이에 따라 水穀의 寒氣로 液과 精이라는 활력소가 생기고, 이 활력소는 大腸·前陰·腹·口·膀胱·足·骨의 腎黨을 보익한다.

이와같이 耳目鼻口, 胃脘·胃·小腸·大腸, 肺脾肝腎과 頭肩腰臀 등 모든 장기들은 고유의 작용을 행하기 위해 津膏油液, 精神氣血 및 臟膜血精을 소모하는데, 각 장기의 清濁에 따라 소모하는 물질의 清濁이 달라진다. 각각의 津膏油液, 精神氣血 및 臟膜血精은 한 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교환 되는데, 이때 支藏干의 작용에 의해 脾臟의 통제를 받으면서 조절된다. 이러한 물질의 升降에 이상이 생기면 疾病이 발생하는 것이다.

### 5. 四象人의 臟局大小

衰性이 遠散하면 火土가 生金하여 肺(西金)의 背佳頁가 활발해져 많은 津液이 공급되고, 怒性이 宏抱하면 木火작용으로 胸脇이 광활해져 脾(午火)의 體를 기르고 土氣를 공급한다. 喜性이 廣張하면 腰脇이 광활해져 津液의 공급이 많아지므로 水작용으로



水生木하여 肝(卯木)을 잘 가꾸고, 樂성이 深確하면 育曲이 광활해져서 津液의 공급이 많아지므로 金작용으로 腎(子水)의 體를 잘 기르고 水氣가 잘 흐르게 한다.

소양인은 哀情이 促急한데, 이는 욕구불만의 결과인 怒성이 極한 결과 木火之氣가 極에 달하여 나타나는 情이므로<sup>48)</sup> 木火之氣의 母氣인 水氣를 소모하게 하니, 水氣가 줄면 育曲이 협착하게 되어 水氣가 많이 모이지 못하므로 腎이 약해진다. 태양인은 怒情이 促急한데, 이는 욕구불만의 결과인 哀성이 極한 결과 火土之氣가 過亢하여 오는 情이므로 火土之氣의 母氣인 木氣를 대량소모하게 하니 木氣가 줄면 腰脇이 협착하게 되어 肝(卯木)이 약해진다. 소음인은 喜情이 促急한데, 이는 안으로 욕구충족이 수용되어 더욱더 탐닉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樂성이 極한 결과로 오는 情이므로 金氣가 母氣인 土氣를 대량 소모하여 脾臟의 기운이 줄어들게 되어 胸腋이 줄어들어 脾가 약해진다. 태음인은 樂情이 促急하니, 이는 욕구충족의 결과 더욱더 탐닉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喜성이 極한 결과로 水氣가 母氣인 金氣를 대량 소모시켜서 肺臟의 기운이 줄어들게 되고 背佳가 줄어들어 肺가 약해진다.

따라서, 太陽人은 哀성이 遠散하고 怒情이 促急하므로 氣注肺하여 肺益盛하고 氣激肝하여 肝益削하므로 臟局이 肺大肝小가 되고, 少陽人은 怒성이 宏抱하고 哀情이 促急하므로 氣注脾하여 脾益盛하고 氣激腎하여 腎益削하므로 臟局이 脾大腎小가 된다. 太陰人은 喜성이 廣張하고 樂情이 促急하므로 氣注肝하여 肝益盛하고, 氣激肺하여 肺益削하므로 臟局이 肝大肺小가 되고, 少陰人은 樂성이 深確하고 喜情이 促急하여 氣注腎하여 腎益盛하고, 氣激脾하여 脾益削하므로 臟局이 腎大脾小가 된다<sup>49)</sup>. 위에 언급된 가장 큰 臟局과 가장 작은 臟局 이외의 臟局도 다음과 같이 大小가 나누어진다.

1) 太陽人

太陽人은 寅의 直升之力이 강하므로 肺大하고, 寅申 沖으로 肝의 寬放之力은 弱하므로 肝小하며, 申의 생조가 약한데다가 亥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하는데 寅이 강하여 亥水를 消耗하므로 腎은 약간 小하고, 申이 沖으로 약화되고 巳와의 숨이 끼지므로 巳火가 약해지지만 왕성한 寅이 木生火하므로 巳火는 약간 大해지므로 脾는 약간 大하다. 이를 大한 순서대로 배열하면 寅>巳>亥>申의 순이고, 衛之작용은 酉>午>子>卯의 순이다.

2) 少陽人

少陽人은 巳의 橫升之力이 강하므로 脾大하고, 巳亥 沖으로 腎의 陷降之力은 弱하므로 腎小하며, 火가 克金하므로 申은 약간

小해지므로 肝은 약간 小해지고, 申이 약하여 克은 받지 않으므로 寅은 약간 大해져서 肺는 약간 大하다. 이를 大한 순서대로 배열하면 巳>寅>申>亥의 순이고, 衛之작용은 午>酉>卯>子의 순이다.

3) 太陰人

太陰人은 申의 放降之力이 강하므로 肝大하고, 申이 寅을 沖하여 肺의 直升之力이 弱하므로 肺가 가장 小해진다. 亥는 왕성한 申의 金生水를 받아 약간 大해지므로 腎은 약간 大하고, 巳는 寅의 생조를 조금밖에 못 받으면서 亥水에게 克을 받아 약간 小해지므로 脾는 약간 小하다. 이를 大한 순서대로 배열하면 申>亥>寅의 순이고, 衛之작용은 卯>子>午>酉의 순이다.

4) 少陰人

少陰人은 亥의 陷降之力이 강하므로 腎大하고, 亥의 沖을 받아 巳는 가장 작아지므로 脾가 가장 작다. 한편 巳가 작으므로 火克金을 심하게 받지 않아 申은 약간 大해지므로 肝은 약간 大하고, 寅은 申의 克을 받아 약간 小해지므로 肺는 약간 小하다. 이를 大한 순서대로 배열하면 亥>申>寅>巳의 순이고, 衛之작용은 子>卯>酉>午의 순이다.

이상 四象人의 臟局大小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3).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寅 (肺) 酉	巳 (脾) 午	寅 (肺) 酉	巳 (脾) 午	寅 (肺) 酉	巳 (脾) 午	寅 (肺) 酉	巳 (脾) 午
申 (肝) 卯	亥 (腎) 子	申 (肝) 卯	亥 (腎) 子	申 (肝) 卯	亥 (腎) 子	申 (肝) 卯	亥 (腎) 子

그림 3. 사상인 장국의 대소

人身는 언제나 兩面性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肝의 體는 木이고 用은 金이며, 肺의 體는 金이고 用은 木이며, 脾의 體는 土이고 用은 火이며, 心의 體는 火이고 用은 土이며, 腎의 體는 水이고 用은 火이다. 性氣는 陰陽의 기운이 분리되기 전에 움직이는 氣이므로 근본을 손상시키고, 情氣는 陰陽이 생기고 난 후에 생기는 氣이므로 작용을 亢進, 消耗시킨다. 四象醫學은 體의 의학이므로 體가 줄어들면 그것이 體質이 된다. 太陽人은 哀성이 極하여 怒情이 생기기 때문에 哀성인 火土之氣가 母氣인 木氣를 消耗하게 되면 肝의 體인 木이 줄어들기 때문에 肝小해지고, 少陽人은 怒성이 極하여 哀情이 동하기 때문에 怒성인 木火之氣가 母氣인 水氣를 과도하게 소모하여 腎의 體인 水氣가 줄어들기 때문에 腎小해지며, 少陰人은 樂성이 極하여 喜情이 동하기 때문에 樂氣인 金氣가 母氣인 土氣를 과도하게 소모하기 때문에 脾小해지고, 太陰人은 喜성이 極하여 樂情이 동하기 때문에 喜성의 母氣인 金氣를 과도하게 소모시켜서 肺小해진다. 그러면 寅巳申亥의 작용력은 이차적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寅은 肺의 升發之力에 이상을 초래하고, 巳는 脾의 橫升之力에 이상을 초래하며, 腎은 肝의 收斂之力에 이상을 초래하고, 亥는 申의 陷下之力에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津膏油液과 臟膜血精의 양의 조절력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치료 당시의 작용력을 염두하여 寅巳申亥로 풀어가야 한다.

6. 四象人의 性情 克復

자연계는 運氣의 勝復법칙에 따라 沖을 당하면 자식을 생하

48) 『東醫壽世保元』: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太陽人哀極不濟則忿怒激外 少陽人怒極不勝則悲哀動中 少陰人樂極不成則喜好不定 太陰人喜極不服則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臍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49)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 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 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여 克服하여 復한다<sup>50)</sup>. 예를들어 申이 寅을 沖하면 寅木은 木生火해서 火克金으로 申金을 조절하는 巳申 合으로 조절하고, 申金은 金生水해서 水生木하여 寅木을 조절하는 寅亥 合하여 水生木해서 조절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인체는 寅巳申亥의 合과 沖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 이상이 없으나, 性情의 偏重에 의해 合과 沖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臟腑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이런 불균형을 야기하는 四象의 性情克服과정을 干支의 刑衝破害의 合生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太陽人의 性情克服

太陽人은 衰性이 極한 결과 怒情이 동하기 때문에 火土之氣가 母인 木氣의 精을 소모시켜 肝이 약해진다<sup>51)</sup>. 寅申沖으로 약해진 肝은 巳申 合하여 金生水하고 강한 寅의 힘으로 寅亥 合하여 水生木하면 木生火해서 怒情이 잘 극복되어 怒力을 회복하여 能合交遇해서 侮를 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寅強하여 聽學之才는 能하지만 申弱하여 鼻의 嗅力은 약하므로 籌策은 能하고 行檢은 能하지 못하다. 이 申弱하여 肝(申)小한 것은 寅申 沖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해서 申의 힘을 돕고, 寅亥 合해서 度量을 닦고, 巳申 合해서 行檢을 닦으면 沖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行檢이 나온다.

2) 少陽人의 性情克服

少陽人은 怒性이 極한 결과 衰情이 동하기 때문에 木火之氣가 母인 水氣의 精을 소모시켜 腎이 약해진다. 巳亥 沖으로 약해진 水는 巳申 合으로 金生水하고 沖合生으로 腎이 약한 것을 극복해서 水生木하고, 寅亥 合으로 衰情을 잘 극복하여 金(西·肺)을 잘 조절하게 되면 少陽人의 肺가 完實하게 되어 肺達事務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 吸하는 肝腎의 기능과 呼하는 木火의 기능이 直升之衰力으로 鍊達하여 事務에 欺하지 않게 된다. 또한 少陽人은 巳亥 沖해서 視問之才에 能하고 味辨之才가 不能하므로, 經綸은 能하고 度量은 약하다. 이를 巳申 合 작용으로 金生水하여 水를 극복하면 진정한 度量이 생긴다.

3) 太陰人의 性情克服

太陰人은 喜性이 極한 결과 樂情이 동하기 때문에 水氣가 母인 金氣의 精을 소모시켜 肺가 약해진다. 이는 促急한 樂情을 극복하면 해결되니, 巳申 合하여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하게 되어 腎이 完實해져 能主居處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 또한 太陰人은 嗅思之才가 能하고 聽學之才가 弱하여, 行檢力은 강하나 籌策은 약하게 태어난다. 강한 嗅思의 힘으로 金生水해서 味辨을 익히고 巳申 合을 해서 視問을 극복하고 寅亥 合으로 籌策을 극복해야 진정한 魄이 나온다.

4) 少陰人의 性情克服

少陰人은 樂性이 極한 결과 喜情이 동하기 때문에 金氣가 母인 土氣의 精을 소모시켜 脾가 약해진다. 이는 促急한 喜情을 극복하면 해결되니, 寅亥 合을 하고 木生火해서 巳申 合이 잘 되면 金生水 水生木해서 肝이 完實해지고, 肝이 黨與를 雅立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또한 少陰人은 味辨之才가 能하고 視聞之才가 弱하고 度量이 強하고 經綸이 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能한 味辨之才로 寅亥 合 해서 籌策을 닦고 이 힘으로 經綸을 극복한다. 그래야 진정한 經綸이 體得된다.

이렇게 각 체질별 大小臟局을 제외한 다른 臟局도 서로 合刑沖破害작용으로 仇神·喜神·忌神 등으로 계절에 따라 변화되어 작용한다. 籌策·經綸·行檢·度量으로 작용하면 喜神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驕矜伐夸心으로 작용하면 忌神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寅巳申亥와 酉午卯子가 각각 喜神과 忌神으로 작용할 수 있다. 籌策·經綸·行檢·度量이 넘치면 驕矜伐夸心이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格致藁에서 제시한 浩然之志(住着之志), 浩然之膽(廉隅之膽), 浩然之慮(敦敬之慮), 浩然之意(計劃之意)이다<sup>52)</sup>. 뜻을 넓게 하여 驕矜伐夸, 奪侈懶竊心이 없어지면 刑衝破害를 合으로 극복하여 生작용으로 나아가게 된다.

7. 四象人의 病理

哀怒喜樂의 性작용은 耳目鼻口가 哀衆人之相欺, 怒衆人之相侮, 喜衆人之相助, 樂衆人之相保<sup>53)</sup>하는 것으로 子臟을 원만하게 補하고 津液을 공급한다. 하지만 太陽人이 좀더 많은 사람이 남을 속이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智慧에 대해 욕심을 내고, 少陽人이 좀더 많은 사람이 남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禮節에 대해 욕심을 내며, 太陰人은 좀더 많은 사람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義理에 대해 욕심을 내면 마음이 동하고, 少陰人은 좀더 완전하게 좀더 많은 사람을 잘 保護해 주려 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仁에 대한 욕심을 내면 마음이 동하고, 욕심을 내면 子臟을 과도하게 生하게 되므로 病이 생긴다. 이렇게 性氣가 짐작하면 表氣를 傷하니 太陽人의 衰性은 鼻腰背氣를 傷하며, 少陽人의 怒性은 口膀胱氣를 傷하고, 少陰人의 樂性은 目膂氣를 傷하고, 太陰人의 喜性은 耳腦佳頁氣를 傷하여 表病이 발생한다<sup>54)</sup>.

情작용은 哀別人之欺己, 怒別人之侮己, 喜別人之助己, 樂別人之保己하는 것으로<sup>55)</sup> 나 자신의 私心이 들어가서 母氣를 소모시켜 진역을 고갈시킨다. 太陽人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것에 대해 怒氣를 발동하고, 少陽人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 哀氣를 발동하며, 太陰人은 내가 매번 도와주었는데 나를 조금 더 안 도와주나 하는 耽溺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保해주는 것에 樂氣를 發하고, 少陰人은 내가 매번 保해 주는데 나를 保해 주지 않는가 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조금 더 도와주기를 바라는 耽溺하는 마음에서 喜氣를 발해서 病이 생긴다.

50) 『素問·六微旨大論』“顯明之右, 君火之位也; 君火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 復行一步 土氣治之 復行一步 金氣治之 復行一步 水氣治之 復行一步 木氣治之 復行一步 君火治之 相火之下 水氣承之 水位之下 土氣承之 土位之下 風氣承之 風位之下 金氣承之 金位之下 火氣承之 君火之下 陰精承之”  
51) 李正來, 『太極醫學全集(三)』, pp. 2159-2191, 第一文化社, 서울, 1989.

52) 『格致藁』“住着之志浩然之志也 廉隅之膽浩然之膽也 敦敬之慮浩然之慮也 計劃之意浩然之意也”  
53) 『東醫壽世保元』“衰性遠散者 太陽之耳察於天時而哀衆人之相欺 衰性非他聽也”, “怒性宏抱者 少陽之目察於世會而怒衆人之相侮也 怒性非他視也”, “喜性廣張者 太陰之鼻察於人倫而喜衆人之相助也 喜性非他嗅也”, “樂性深確者 少陰之口察於地方而樂衆人之相保也 樂性非他味也”  
54) 『東醫壽世保元』“少陽人怒性傷口膀胱氣 衰情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傷目膂氣 喜情傷脾胃氣 太陰人喜性傷耳腦佳頁氣 樂情傷肺胃腕氣乎 曰然”  
55) 『東醫壽世保元』“怒情促急者 太陽之脾行於交遇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非他怒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行於事務而哀別人之欺己也 哀情非他哀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行於居處而樂別人之保己也 樂情非他樂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行於黨與而喜別人之助己也 喜情非他喜也”

哀怒는 相成하며 喜樂이 相資하니 哀性이 極則 怒情이 動하고 怒性이 極則 哀情이 動하고 樂性이 極則 喜情이 動하고, 喜性이 極則 樂情이 動하여 太陽人이 哀極不濟則 忿怒가 激外하고 少陽人이 怒極不勝則 悲哀가 動中하고 少陰人이 樂極不成則 喜好가 不定하고 太陰人이 喜極不服則 侈樂이 無厭하다고 했다<sup>56)</sup>. 이러한 情氣가 폭발하면 傷裏氣하게 된다. 太陽人의 哀性이 극한 결과로 怒情이 동하므로 哀性의 氣인 火土之氣가 과도하게 母氣인 木氣를 빨아들인 결과 怒情이 동하여 肝·小腸氣를 傷한다. 少陽人의 怒性이 극한 결과로 哀情이 동하기 때문에 怒性의 氣인 木火之氣가 과도하게 母氣인 水氣를 빨아들인 결과 哀情이 동하여 腎·大腸氣를 傷한다. 少陰人의 樂性이 극한 결과로 喜情이 동하기 때문에 樂性의 氣인 金氣가 과도하게 母氣인 土氣를 빨아들여 喜情이 동하고 脾·胃氣를 傷하게 된다. 太陰人의 喜性이 극한 결과로 樂情이 동하기 때문에 喜性의 氣인 水氣가 과도하게 母氣인 金氣를 빨아 들인 결과 樂情이 동하고, 그래서 肺胃腕氣를 傷하게 되어 裏病이 생긴다. 즉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表病이 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에서 감정이 동해서 발현되면 裏病이 된다(표7).

표 7. 四象人의 表裏病

	表病	裏病
太陽人	哀性 傷鼻腰脊氣	怒情 傷肝小腸氣
少陽人	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太陰人	喜性 傷耳隣任氣	樂情 傷肺胃腕氣
少陰人	樂性 傷目腎氣	喜情 傷脾胃氣

病이 발생하면 寅巳申亥, 酉午卯子, 辰戌丑未에서 合刑冲破害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던 진액대사의 균형이 깨진다. 즉, 寅巳申亥가 子午卯酉의 衛之작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辰戌丑未의 四庫의 진액을 정확히 잘 분배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氣의 寒熱溫涼의 균형과 升降浮沈의 작용에 이상이 발생하여 病이 발생한다. 이러한 病의 전개는 水克火하는 太陽病, 火克金하는 陽明病, 金克木하는 少陽病, 木克土하는 太陰病, 土克水하는 少陰病, 水克火하는 厥陰病의 傷寒論에서처럼 運氣의 逆順을 따른다. 다만 四象人이 각기 寒熱溫涼의 정도가 다르고, 臟局의 大小가 다르기 때문에 病증과 처방이 달라질 뿐이다. 가령 傷寒論에서의 太陽病인 水克火현상이 少陰人에게 일어나면, 少陰人은 亥水가 旺하여 平상시에 表와 裏에 亥水가 하나 더 있는 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外感 寒氣가 더해지니 表에서 氣分의 火氣와 血分의 火氣가 모두 울색된다. 이것을 脾陽·心陽·腎陽의 힘으로 제거하기 위해 仲景은 桂枝湯으로 치료하였으나, 東武는 여기에 체질상의 寒이 더 가해진 것을 고려하여 桂枝湯에 川芎, 蒼朮, 陳皮를 加하였다. 水克火되면 표피의 木火土金水 중 水의 寒氣가 세지고, 火는 克을 받아 약해지며, 土도 火에 의해 生助받지 못해 약해지고, 木은 과도한 水의 生助를 받아 鬱하게 되며, 金과 水만

별 손상이 없게 된다. 따라서 桂枝로 心陽을 돌아 표피까지 가도록 하고<sup>57)</sup>, 木의 鬱은 芍藥으로 치료하며<sup>58)</sup>, 炙甘草로 去來를 적당하게 조절하여 土를 生助하고<sup>59)</sup>, 生薑으로 金生水·水生木하여 溫氣를 붙여넣어 주면서 三焦의 수분으로 빨리 모자라는 혈액을 보충하며<sup>60)</sup>, 大棗로 火生土·土生金의 과정을 조절하여 달아나는 衛氣를 혈액 속에 잡아두어 營衛의 조화를 피하는 桂枝湯을 쓴다<sup>61)</sup>. 하지만 少陰人은 體질상 亥水의 寒氣가 旺하여 血中 氣分도 寒氣에 의한 공격으로 응축되어 氣의 흐름이 늦어지므로, 川芎으로 血中の 寒氣를 덜어내면서 氣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sup>62)</sup>, 蒼朮로 土의 寒濕을 뺏아내며<sup>63)</sup>, 陳皮로 갑자기 水克火되어 榮衛不調하여 錯綜된 脾氣를 바로잡아 氣의 중심을 잡도록<sup>64)</sup> 桂枝湯의 變方인 川芎桂枝湯을 제시하였다.

少陰人이 평소 表虛證을 가지고 있을 때 水가 하나 더해지면 固表작용이 안되어 汗을 흘리는데, 汗出을 따라 陽氣가 빠져나가 火가 전멸되어 亡陽이 되면 黃芪와 人蔘으로 升陽益氣시켜야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少陰人은 火가 弱하고 水가 强하기 때문에 表病에서 水克火 현상이 主를 이루고, 火克金이나 金克木의 病증으로 쉽게 나아가지 않으며 또한 陽이 부족하기 때문에 곧바로 三陰病으로 直中되어 太陰·少陰·厥陰으로 들어간다. 東武는 太陰證과 少陰證 안에 厥陰證을 포함시켰다. 水가 木을 과다 生조하여 木鬱하고, 火가 약하여 火生土하지 못하므로 木鬱에 의해 木克土의 病증이 나타나 太陰病이 되면, 脾陽이 肺陽이 되지 못하므로 乾薑·肉桂·附子·人蔘·吳茱萸 등으로 健脾助陽시킨다. 다음 단계로 附子を 써서 腎陽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土克水의 少陰證이 전개된다. 다음은 血까지 濁滓가 생겨서 血의 濁滓까지 걸러 주어야 하기 때문에 吳茱萸를 사용하는 厥陰證까지 치료해야 되는 것이다.

少陽人은 巳火가 强하고 亥水의 寒氣가 弱하기 때문에 太陽證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少陽證과 陽明燥熱證이 나타난다. 表에서 水克火되면 약한 寒氣가 강한 火氣를 공격하여 火氣의 반발에 의해 火克金·金克木으로 진행하여 바로 陽明證(煩燥證)과 少陽證(結胸)이 된다. 그러므로 表證에서는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導赤降氣湯을 순차적으로 투여해야 할 경우도 있다. 火克金, 金克木하기 때문에 肝鬱을 푸는 柴胡<sup>65)</sup>와 肝肺不和를 푸는 前胡<sup>66)</sup>, 腎鬱을 푸는 獨活<sup>67)</sup>, 膀胱鬱을 푸는 羌活<sup>68)</sup>을 넣어 鬱을 위주로 해소한다. 즉, 火에 포위된 水의 鬱을 풀면 水克火는 자연히 풀린다. 巳亥沖으로 大腸의 陰氣를 閉陰시켜 火克金하면 亡陰證을 발하므로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 黃連清腸湯을 투여한다. 少陽人 裏證에서는 평

57) 鄒澍, 本經疏證, pp. 131-136, 대성의학사, 서울, 2001.  
 58) 鄒澍, 本經疏證, pp. 259-267, 대성의학사, 서울, 2001.  
 59) 鄒澍, 本經疏證, pp. 43-50, 대성의학사, 서울, 2001.  
 60) 鄒澍, 本經疏證, pp. 213-225, 대성의학사, 서울, 2001.  
 61) 鄒澍, 本經疏證, pp. 184-189, 대성의학사, 서울, 2001.  
 62) 鄒澍, 本經疏證, pp. 98-102, 대성의학사, 서울, 2001.  
 63) 鄒澍, 本經疏證, pp. 54-61, 대성의학사, 서울, 2001.  
 64) 李濟馬, 東武遺稿, p. 26, 海東醫學社, 서울, 1999.  
 65) 鄒澍, 本經疏證, pp. 63-69, 대성의학사, 서울, 2001.  
 66) 鄒澍, 本經疏證, pp. 626-628, 대성의학사, 서울, 2001.  
 67) 鄒澍, 本經疏證, pp. 72-75, 대성의학사, 서울, 2001.  
 68) 李濟馬, 東武遺稿, p. 76, 海東醫學社, 서울, 1999.

56) 東醫壽世保元: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太陽人哀極不濟則忿怒激外 少陽人怒極不勝則悲哀動中 少陰人樂極不成則喜好不定 太陰人喜極不服則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臍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상시에 땀이 뜨거운 상태에서 熱을 받기 때문에 胸膈에 熱證이 바로 진행되어 上消, 中消證, 裏熱便閉證이 생기고, 熱에 대항하기 위해 바로 發斑이 생기기도 한다. 上消에는 涼膈散火湯, 中消에는 忍冬藤地骨皮湯, 裏熱便閉에는 地黃白虎湯·陽毒白虎湯을 쓴다. 火가 下焦 腎臟을 공격하여 腎精이 고갈되어 下消가 생기면 熟地黃苦參湯, 六味地黃湯으로 치료하고, 中風·吐血證이 생기면 獨活地黃湯·十二味地黃湯으로 치료한다. 이렇듯 少陽人의 裏病은 太陰病이나 少陰病으로 가지 않고 陰虛燥熱한 증상으로 진행된다. 少陽人은 강한 火가 평상시에 表와 裏에 있는 사람인데 약한 水가 강한 火를 때리니 鬱과 侮의 증상이 처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表證부터 疏肝利氣시키는 柴胡之劑를 쓰고 鬱로 인한 津液의 고갈이 처음부터 오기 때문에 瓜蒌仁·生地黃·石葶 등을 쓰게 되고 鬱火로 인한 水火既濟의 혼란을 茯苓·猪苓·澤瀉로 表와 中과 裏를 바로 세우고 寒熱의 투쟁으로 생긴 濁滯는 牛蒡子和 玄蔘 등으로 제거해야 되는 것이다.

太陰人의 경우에 申인 涼氣가 강하기 때문에, 表와 裏에 涼氣인 申금이 하나 더 있는 것과 같다. 처음부터 表皮의 피부호흡이 장애를 받기 때문에 이때에 외부에서 外感 寒으로 水克火하게 되면 이 寒에 수렴하는 기운인 申의 涼氣가 더해지므로 표피에는 더욱더 鬱塞이 생기면서 腠理를 닫아 無汗이 된다. 이때 仲景은 麻黃湯으로 치료하였고, 東武는 太陰人의 경우 表의 鬱塞力·收斂力이 더 강하기 때문에 麻黃發表湯을 썼다. 麻黃湯에 桂枝를 桔梗<sup>69)</sup>으로 대체하여 肺의 울색으로 인해 저하된 表의 승발력을 높이고, 鬱로 인한 반발열로 인해 고갈된 津액을 보충하기 위해 甘草를 麥門冬<sup>70)</sup>으로 대체하며, 涼氣에 의해 金侮火되어 心臟火에 鬱熱이 생긴 것은 黃芩<sup>71)</sup>을 가하고, 鬱熱로 인한 心肺의 津액 소실은 麥門冬과 杏仁<sup>72)</sup>을 가하여 보충하였다. 收斂이 지나치게 된 寒厥證에서는 熊膽散과 寒多熱少湯을 쓴다. 熊膽散의 熊膽<sup>73)</sup>으로 肺의 邪氣를 일시에 쫓아내면서 脾臟의 포위된 寒濕을 밀어내고, 寒多熱少湯의 薏苡仁·乾栗·羅菴子·黃芩·桔梗·杏仁·麻黃으로 金侮火 당해 급속하게 떨어진 저항력을 일시에 높이도록 조절하였다. 表에서 寅申沖을 당하면 肺에 寒燥證이 생겨 肺의 肅降作用과 發散作用에 이상이 오고 이차적으로 土生金이 안되어 위장의 이상을 초래하고 金生水, 水生木이 안되어 養筋작용을 저해하여 食滯痞滿·腿脚無力證이 나타나면 太陰調胃湯·補肺元湯·調胃升清湯으로, 哮喘이 나타나면 麻黃定喘湯으로, 胸腹痛이 나타나면 麻黃定痛湯으로 치료하고, 허약인은 鹿茸大補湯으로 補한다. 寅申沖이 되어 肝이 熱을 받으면 반발열로 인하여 津액이 고갈되므로 涼燥가 熱燥로 변하여 肝燥熱證이 생기는데, 陽毒發斑에는 葛根解肌湯을, 消渴·虛勞·夢泄에는 熱多寒少湯을, 腹痛·泄瀉·夢泄에는 清心蓮子湯을 투여하고, 燥澀便閉가 되면 清肺瀉肝湯·葛根承氣湯·皂角大黃湯으로 치료한다. 少陽人은 火克金될 때 石葶를 쓰는 陽明經證이 나타나지만, 太陰人은 陽明腑證이 나타나는 이유는 少陽人과 太陰人의 陰陽차이 때문이다.

太陽人은 火土之氣가 왕하여 寅의 直升之力이 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늘 表와 裏에 火土의 기운이 있는데 여기에 外感 寒에 의하여 水克火하면 寅이 하나 더 있어서 火를 생해 바로 火生土하므로 사막에 물이 금방 말라버리듯 火土가 寒氣를 일시에 다 빨아들이므로 水克火의 表病證이 잘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더라도 약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不寒不熱하게 되고, 바로 金克木당하기 쉽다. 肌肉에 涼氣가 부족한 상태에서 金克木당하기 때문에 津액이 가지 않으므로 筋이 꼬이는 解休症이 생긴다. 이때 生地黃이나 石膏같이 寒한 약을 쓰면 뜨겁게 달군 쇠위에 찬물을 끼얹어 물이 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서늘한 약을 써서 肌肉에 津액을 공급하면서 수렴기운이 강한 木瓜, 五加皮 根皮같은 藥을 사용한다. 裏病은 木克土하여 噎膈·反胃가 된다. 太陽人은 寅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溫氣가 강하고 흉곽의 입력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잘 토하게 되고 下肢는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涼潤하고 좌선하면서 하강하는 미후도같은 열매를 써서 하강을 유도해서 상승된 小腸 기운을 하강시켜야 되는 것이다. 태양인은 늘 肝의 하강기능이 약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과 감정의 조절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肝의 木克土 기능도 怨嗔처럼 서서히 끈질기게 진행되기 때문에 太陽人의 치료는 오랜 세월을 두고 해야 하며<sup>74)</sup>, 遠嗔怒 斷厚味해야 한다<sup>75)</sup>.

少陰人은 表寒證만 보이고, 少陽人은 表證으로 煩燥症만 보이고, 太陽人은 특별한 표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며, 太陰人은 表鬱證만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東武는 傷寒의 六條病證中에 三陰病證은 모두 少陰人 病證이고, 少陽病證은 少陽人 病證이고, 太陽病證과 陽明病證은 少陽人·少陰人·太陰人의 病證이 고루 있는데, 少陰人 病證이 많다고 하였다<sup>76)</sup>. 또한 太陽人은 寅의 直升之力이 강하기 때문에 하함해야 배설되는 小便이 정상이면 完實無病이라 하였고, 太陰人은 寅申沖으로 收斂氣가 강하여 津液의 發散之力이 약하기 때문에 땀이 잘 나는 것을 完實無病이라 하였고, 少陽人은 巳火가 강하여 胃腸의 津액이 마르므로 대변이 잘 소통되는 것을 完實無病이라 하였고, 少陰人은 亥水가 강하여 胃腸의 火가 부족하므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잘 소화시키면 完實無病이라 하였다<sup>77)</sup>.

## 결론

사람의 性情·臟腑·인체기관 및 우주를 이루고 있는 삼라만상은 모두 十二地支의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十二地支에는 또 十二地支가 있어 體·用·變으로 움직여 나간다. 인체 생리·병리는 寅巳申亥·酉午卯子·辰戌丑未의 合刑沖破害 작용으로 돌아가는데, 寅巳申亥는 用적인 측면을 갖고, 酉午卯子是 體

69) 鄒澍, 本經疏證, pp. 428-431, 대성의학사, 서울, 2001.  
70) 鄒澍, 本經疏證, pp. 69-72, 대성의학사, 서울, 2001.  
71) 鄒澍, 本經疏證, pp. 276-281, 대성의학사, 서울, 2001.  
72) 鄒澍, 本經疏證, pp. 485-491, 대성의학사, 서울, 2001.  
73) 李濟馬, 東武遺稿, p. 63, 海東醫學社, 서울, 1999.

74) 『東醫壽世保元』“余稟賦太陽人 嘗得此病 六七年 嘔吐涎沫 數十年攝身 倖而免天 錄此以爲太陽人 有病者戒 若論治法 一言蔽曰 袁嗔怒而已矣”  
75) 『東醫壽世保元』“或曰 吾子 論太陽人解休病治法 曰戒深哀 袁嗔怒 修清定 論噎膈病治法 曰袁嗔怒 斷厚味”  
76) 『東醫壽世保元』“六條病證中 三陰病證 皆少陰人病證也 少陽病證 卽少陽人病證也 太陽病證 陽明病證 則少陽人 少陰人 太陰人病證 均有之 而少陰人病證 居多也”  
77) 『東醫壽世保元』“太陽人 小便旺多 則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 則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 則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 則完實而無病”

로서 衛之하며, 辰戌丑未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진액의 寒熱溫涼·升降浮沈을 분배·조절한다. 인체의 진액대사는 無形無象에서 有質有象으로 변화시키는 耳目鼻口의 작용, 외부에서 들어오는 天氣와 地氣를 합해 氣水液穀을 津膏油液으로 분류시키는 六腑의 작용, 六腑에서 받은 津膏油液을 耳目鼻口와 神靈魂魄의 도움으로 精神氣血을 만드는 작용, 肺脾肝腎이 耳目鼻口, 意慮操志와 神靈魂魄의 도움으로 精神氣血을 臟膜血精으로 만드는 작용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寅巳申亥는 津膏油液으로, 酉午卯子는 臟膜血精으로, 辰戌丑未는 精神氣血로 津膏油液과 臟膜血精을 분배, 조절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四象人은 仁義禮智의 性작용에 의해 火土(寅), 木火(巳), 水(申), 金(亥)氣가 子氣를 생조하고 哀怒喜樂의 情작용에 의해 母氣를 奪함에 따라 장국의 大小가 나뉜다. 『內經』의 喜怒哀樂과 四象의 喜怒哀樂의 氣의 기전이 다른 이유는 『內經』에서는 七情의 氣의 작용을 原因論의 관점에서 보았고, 四象醫學에서는 結果論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性情을 다스리지 못하면 寅巳申亥, 酉午卯子, 辰戌丑未의 刑沖破害 작용에 의해 병이 생기지만, 습으로 잘 극복하면 正정한 籌策, 經綸, 行檢, 度量과 識見, 威儀, 才幹, 方略의 지혜가 생긴다. 相對를 위해서 配慮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表病이 되고, 자신의 몸에 대한 愛着에서 感情이 動해서 發顯되면 裏病이 된다. 四象醫學의 병증도 傷寒論에서 運氣의 역순에 의해 병증이 전개되어 나가듯 같은 기전으로 나타나지만, 각 四象人의 寒熱溫涼의 多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少陰人은 亥水의 작용이 하나 더 가해진 것과 같

으므로 辛甘한 약으로 치료하고, 少陽人은 巳火의 작용이 하나 더 가해진 것과 같으므로 涼潤한 약으로 치료하며, 太陽人은 申金의 涼이 하나 더 가해진 것과 같으므로 辛溫한 약으로 치료하고, 太陰人은 寅木이 하나 더 가해진 것과 같으므로 수렴력이 강한 약으로 치료한다.

## 참고문헌

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일증사, 1987.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회: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1997.
3. 李濟馬 원저 박대식 역주: 格致藁, 성남, 청계출판사, 2000.
4. 洪元植 역: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5. 李濟馬 원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청계출판사, 1999.
6. 최동환: 삼일신고, 서울, 지혜의 나무, 2002.
7. 金碩鎭: 周易講解(上), 서울, 大有學堂, 1994.
8. 李正來: 太韓醫學全集(三), 서울, 第一文化社, 1989.
9. 李濟馬 원저 朴性植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집문당, 2003.
10. 申六泉: 四柱鑑定法秘訣集, 대구, 甲乙堂, 1993.
11. 大韓曆法研究所: 滴天髓闡微, 서울, 南山堂, 1994.
12. 沈載烈: 淵海子平精解, 서울, 明文堂, 1999.
13. 鄒澍 지음 임진석 옮김: 本經疏證, 서울, 대성의학사, 2001.
14. 李濟馬 지음 이창일 역주: 東武遺稿, 초판, 서울, 海東醫學社, 1999.
15. 李濟馬: 東醫四象新編.